

찬란했던 고대 아랍 유물, 탐욕에 뜯겨 암시장으로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켜라

<3> 과거와 공존, 모로코 페스

시큰했다. 내리쬐는 태양. 만물이 썩기도 전에 바스러질 듯한 열기.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도시 페스는 온몸이 저릴 만치 당당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000년 넘게 버텨낸 꽃꽂이 세월. 수도 라바트에서 200km 떨어진 고대 아랍도시인 딱히 수사가 필요치 않았다. 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니어도, 사막을 닮은 화반죽의 무채색은 단순하기에 빼어났다.

글·사진 페스(모로코)=정양한 기자 ray@donga.com

“사막의 노마드(유목민)도 정착이 주는 육체적 안락을 바라는 순간이 있다. 강력한 왕조가 그 감명을 포착한 순간, 그곳엔 한 도시의 번영이 싹트기 시작한다.”
-14세기 이슬람 사상이 이븐 할둔

1부 글 쓰는 순서

- 1 가장이쁜 위기 맞은 페루 천천유적
- 2 건축박물관 베네수엘라 코로헝구
- 4 불교예술 정수, 인도 아진타 석굴
- 5 철새 천국, 튀니지 아슈켈 공원

페스의 진면목은 그런 면발치 조망에 있지 않다. 789년 이드리스 왕조의 이드리스 2세가 도읍으로 정한 뒤 지금껏 살고 부대간 도시의 속살. 커져가 쌓인 인간의 땀자국에 참 가지가 있다. 안대를 맡은 하미드도 고개를 주억거렸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는 나귀를 피하다 어깨라도 한 번쯤 부딪혀야 진짜 페스에 온 거야.”

도시가 융성했던 시절. 11세기 한 이슬람 시인은 페스의 골목을 ‘포도주가 흐르는 시냇물’이라 불렀다. 스스로 자라난 잡초처럼. 9600여 개에 이른다는 길은 어느 하나 닳은 게 없다. 좁았다 넓어지고, 뽀는가 하면 구부러진다. 아랍인들이 좋아하는 양고기 내장을 달은 생경한 미로. 라바트부터 동행한 유네스코 직원 무우야르 베크르 씨(32)가 어깨를 다독였다.

“길을 잃을까 봐 겁내지 마세요. 해매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곳은 문득 시간을 거슬러 옛 문명 앞에 당도하는 짜릿함을 안겨 주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페스에서 역사는 그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다.”

도시를 휘감는 숨결은 실제로도 아찔하고 농염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페스 여행객인 고양이 사체 냄새의 흔적이라 불렀다. 향신료와 민트 티, 콩죽과 푸조간, 그리고 쿠스쿠스(동물을 찌서 아재와 고기를 얹은 모로코 음식)와 아르간오일(모로코 특산 아르간 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까지. 온갖 냄새가 뒤섞여 현연조차 힘들다. 역사(history)의 어원인 그리스어 ‘이스토레오(istoreo)’가 ‘눈으로 보고 깨닫다’란 뜻이라면 페스에서 역사는 그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다.

“냄새를 맡고 깨닫다.”
그 정점엔 페스의 명물 ‘슈아라 탄네리(Chouara Tannery)’가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가죽 무두질 작업장. 농밀한 피약발 아래 색료 통 위로 인부들이 짹짹 오간다. 땀이

않아도 그 모든 게 페스였다. 그들이 일군 저잣거리는 역사적 가치도 높다. 그 집을 나서 몇 발치에 선 푸른 분수대는 도시가 태어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15세기 창건된 환한 풀빛 지붕 아래엔 이교도의 출입을 금하는 왕이자 몰라(성직자) 이드리스의 무덤이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드라사(이슬람 고등 대학)가 포함된 카라위인 모스크(860년 경)의 고색창연함이란. 143개의 모스크와 7개의 마드라사, 64개의 분수대. 끊이질 못 이어지는 골목 굽이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가 오롯한 숨결을 내뿜었다.

“호흡한다 표현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페스의 전통 가죽은 진흙 벽돌과 석회, 모래를 섞어 벽을 세우죠. 여름엔 열기를 내보내고, 겨울엔 온기를 머금어요. 그런 벽돌을 주민들은 ‘숨쉬는 벽’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무신 엘이드리시 엘오마리 페스지역문화담당관)

도시를 휘감는 숨결은 실제로도 아찔하고 농염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페스 여행객인 고양이 사체 냄새의 흔적이라 불렀다. 향신료와 민트 티, 콩죽과 푸조간, 그리고 쿠스쿠스(동물을 찌서 아재와 고기를 얹은 모로코 음식)와 아르간오일(모로코 특산 아르간 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까지. 온갖 냄새가 뒤섞여 현연조차 힘들다. 역사(history)의 어원인 그리스어 ‘이스토레오(istoreo)’가 ‘눈으로 보고 깨닫다’란 뜻이라면 페스에서 역사는 그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다.

“냄새를 맡고 깨닫다.”
그 정점엔 페스의 명물 ‘슈아라 탄네리(Chouara Tannery)’가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가죽 무두질 작업장. 농밀한 피약발 아래 색료 통 위로 인부들이 짹짹 오간다. 땀이

않아도 그 모든 게 페스였다. 그들이 일군 저잣거리는 역사적 가치도 높다. 그 집을 나서 몇 발치에 선 푸른 분수대는 도시가 태어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15세기 창건된 환한 풀빛 지붕 아래엔 이교도의 출입을 금하는 왕이자 몰라(성직자) 이드리스의 무덤이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드라사(이슬람 고등 대학)가 포함된 카라위인 모스크(860년 경)의 고색창연함이란. 143개의 모스크와 7개의 마드라사, 64개의 분수대. 끊이질 못 이어지는 골목 굽이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가 오롯한 숨결을 내뿜었다.

“호흡한다 표현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페스의 전통 가죽은 진흙 벽돌과 석회, 모래를 섞어 벽을 세우죠. 여름엔 열기를 내보내고, 겨울엔 온기를 머금어요. 그런 벽돌을 주민들은 ‘숨쉬는 벽’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무신 엘이드리시 엘오마리 페스지역문화담당관)



5층 옥상에서 내려다본 가죽 무두질 작업장 ‘슈아라 탄네리’. 페스는 천연염료로 가죽에 색을 입히는 전통방식을 수백 년째 이어오고 있다. 작업장은 온갖 염료와 오물 냄새가 가득하지만 양과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제품은 형형색색 고운 자태를 뽐낸다.

1000년 세월 전려낸 옛 이드리스 왕조 도읍지

1981년 ‘문화유산’ 등재

린 전통의 손길로 양과 염소 가죽에 색과 질감을 입힌다. 빨강부터 회색까지 넘나드는 오묘한 빛깔. 모두 자연에서 얻어진 양귀비와 사프란, 비둘기 퐁과 쇠오줌이 원료. 독한 비린내가 초보의 온몸에 감겨온다. 그제야 입구에서 건네준 유칼립투스 잎사귀가 방향용임을 눈치 챘지만. 페스는 이미 이방인의 혼을 저만치 흠쳐갔다. 태양과 미로와 잔향의 마법으로.

“아름다운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건 아름다운이 아니라 그걸 소유하는 방식이란다.”
-정미경의 소설 ‘아프리카의 별’ 중에서

누구나 안다. 아름다운 간직하기가 더 어렵다. 시간과 나태가 좀



페스: 리스 산자락 남쪽 기슭에 분지처럼 자리 잡은 페스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8세기 세워진 ‘페스 알발리’와 13세기 메리나드 왕조가 새롭게 건설한 ‘페스 알제드’(New Fez)라는 뜻.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빌라 누벨’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페스의 메디나(Medina of Fez)’는 구도심 지역인 페스 알발리 전체를 일컫는다. 메디나는 원래 이슬람 문화에서 성지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엔 사원과 시장을 포함한 도심 전체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먹는다. 하루며 1200여 년을 지탱한 공간. 멈춘 적이 없기에 부침도 공존한다. 페스를 지키는 일은 현재는 물론 미래 진행형이다. 그 때문에 21세기 페스는 망치질

골목골목 방치된 가죽들 문짝-타일 야금야금 훼손 “문화교육-경제지원 절실”

소리가 낮설지 않다. 베크르 씨가 안내하는 모스크마다 새로 입힌 모자이크 타일과 부목이 눈에 띈다. 198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모로코 정부와 유네스코는 주요 50개 유적을 중심으로 복원공사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들인 돈도 6억 달러(7150억 원)가 넘는다.

성과가 없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다. 손봐도 몇대도 또다시 금이 간다. 겨울철 우기에 특히 취약하다. 하미드는 “지난해 12월 폭우 때도 건물이 무너져 5명이 숨졌다”고 알려졌다. 엘오마리 담당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페스의 가치는 문화유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린다는 데 있습니다. 유적만 보호받을 게 아니라 전통 생활방식도 소중하죠. 그러다 보니 오래된 가죽생

활은 언제나 위험이 상존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데 예산과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척박한 환경 탓에 고향을 등진 이도 늘었다. 1980년대만 해도 페스 알발리(Old Fez)라는 뜻은 인구가 15만 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10만 명 수준이다. 내버려진 채 자물쇠가 잠긴 가죽도 꽤 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곰팡이는 더 빨리 슬어간다.

게다가 이런 빈집들을 노린 블랙마켓(암시장)도 생겨났다. 문짝 하나, 타일 한 쪽도 고공스러운 유물이니 찾는 이가 많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현지 주민들은 세삼스럽지 않단 눈치다. 한 주민은 “암시장에선 모스크나 마드라사의 유물도 거래한다”고 귀띔했다.

유네스코가 가장 신경을 쓰는 점도 이런 대목이다. 유네스코모로코위원회 투리아 마줄린 사무총장은 “교육이 페스의 보존 생태를 좌우할 것”이라 단언했다.

“문화유산은 빚보다 장기적 안목이 중요합니다. 모로코인에게 페스는 일개 관광도시가 아니라 정신적 수도예요. 현지 주민과 자라나는 세대에 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문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키고 발전

하는 토양을 일구어야죠.”
문제인식은 적절하다. 하지만 그게 언제쯤 풀뿌리 민초까지 이어질지. 우연히 들른 금속공예점. 장인 무함마드 아타르 씨(43)의 푸념은 건조하되 먹먹했다.

“평생 청동을 두드려 살았죠.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작업이니까. 이것 말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만 일손을 놓고 싶은 때도 있어요. 관광객이 야 꾸준하지만 수제품을 찾는 이는 드뭅니다. 기계로 찍은 저렴한 상품에 손이 가는 맘이야 이해가 가지만... 별이가 시원찮으니 배우려고 나서는 젊은이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겠죠.”

페스를 막 벗어나려던 무렵. 또 한 번 붓집 실은 나귀와 마주했다. 오르고 또 울랐던 길일 텐데 왠지 주춤거린다. 초로의 주인이 성난 채찍을 내리쳤다. 허벅지는 신을 속에 마지못해 걸음을 땀다. 그때 언뜻 눈에 비친 게 눈물이었을까. 자꾸만 돌아봐도 뒤뚱거리는 포랑지만 멀어져 간다. 지친 나귀의 미래를 누군들 알겠느냐만. 어느덧 페스에도 느릿느릿 해가 저물어갔다.



전통 금속공예점 ‘네크브론즈(Neqbronze)’의 장인 무함마드 아타르 씨. 페스가 자랑하는 청동 도금 접시의 화려한 문양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새겨 넣은 것들이다.



페스의 늦그릇 시장에서 마주된 소년과 나귀. 차가 다닐 수 없는 좁다란 페스의 골목길에서 나귀나 노새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운반수단이다.

국내 100만개 판매 돌파기념 200분 한정 볼륨 샴푸 증정

뿌리면 즉시 효과 “탈모 걱정 뚝”

10초만에 원형/부분 탈모해방, 일본·한국·유럽 특허, 식약청 승인

새로운 개념의 흑채로 일본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킨 인공머리카락 슈퍼밀리언 헤어가 국내 판매 100만개 돌파 기념으로 첫 고객감사 행사를 실시한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원형탈모, 부분탈모 등 머리카락이 부족한 부위에 약 10초간 뿌리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머리스타일이 연출된다. 0.3~0.5mm 정도의 미세한 헤어 입자가 기존머리카락과 두피 위에 밀착돼 탈모 부위를 풍성하게 보이는 원리로 갑작스러운 외출과 중요한 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성분들에게 인기)

슈퍼밀리언 헤어(흑채)의 장점은 첫째,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제품들처럼 장기간 사용을 요하지 않으며 사용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넷째, 사용 후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간단하게 제거된다. 다섯째, 천연필립 및 향균 성분 함유로 장기간 사용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100만개 판매돌파 고객감사 기념 첫 국내 행사로 3개월 분 슈퍼밀리언 헤어 한통(25g)과 비, 바람, 운동시 헤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전용 스프레이(165ml)를 과격특가 78,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힘 없이 가라앉은 빈약한 모발을 볼륨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볼륨 샴푸(300ml)를 200분 한정으로 더 드리는 행사 및 무료배송을 실시한다.
24시간 무료 상담전화 080-582-0119

미세먼지 잡는 ‘물청소기’ 한국상륙

필터NO, 먼지봉투NO, 물이 필터역할, 50%파격할인행사 천식, 기관지, 호흡기질환 필수/아기, 노약자, 애완동물 꼭 추천

영국에서 출발한 세계적인 진공청소기, 소형가전 전문기업인 ‘오거웨이’가 먼지봉투나 필터 없이 미세먼지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신개념 진공 청소기가 국내 상륙했다. 지금까지 진공청소기는 어떠한 형태든 필터나 먼지통이 있어서 사용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오거웨이’ 청소기는 약간의 물과 전기만 있으면 평생을 사용하는 경제적인 청소기이다. 본체 뒷부분 탱크에 0.5리터(L)의 물만 부어주면 맹물이 필터역할을 하며, 스위치를 누르면 빨아들인 먼지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 (즉 미세먼지는 물 필터가 완벽해결) 뿐만 아니라 0.001mm크기의 먼지입자까지 처리하고 쏟아진물이나 깨진 달걀같은 액체도 거름없이 빨아들인다. 탱크를 비울 때도 먼지 걱정이 없다. 비우고 씻어내면 그만이다. 여는 청소기처럼 조금 쓰다 보면 필터가 막혀 흡입력이 줄어드는 현상도 생기지 않으며, 흡입력은 불링공을



들어올릴 정도로 강하다. 기관지나 호흡기가 약한분, 천식이 있는분들, 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 먼지에 민감한분, 노약자분들에게 적극추천한다. 소비전력 1,200와트(W), 무게 8.5kg, 코드길이 5m다. 국내 상륙 기념으로 기존가 316,000원에서 무려 50%를 할인한 158,000원에 100분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무이자 3개월 할부와 무료배송 혜택까지 주어진다.
24시간 무료 상담전화 080-949-7000

암, 7대 질병 수술비 보장에, 보험료 인상/갱신없는 보험 대요, 고혈압 있어도 65세까지 당요, 별도플랜으로 가입가능!

(무)LIG행복한인생보험 부모님플랜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 하지만 실제 보장받아야 할 부모님 연세 안보장은 가입이 힘들었던게 현실이었지만 최근 부모님 연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무)LIG행복한인생보험 부모님플랜은 암, 치매, 7대 질병수술비 보장에 보험료도 갱신없이, 인상없이 끝까지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험가입을 포기했던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비용이 많이 들어 더 걱정되는 암 진단금은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보장하고(면책기간90일, 1년내내50%지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등 7대 질병의 수술비는 물론, 5대 장기이식 수술비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증치매위도금, 골절진단금(치아과절 제외), 화상진단금(심재성2도이상진단시)도 보장하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후유장애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중교통사후유상해도 보장된다. 이런 보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갱신없이, 인상없이 처음 낸 보험료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고 게다가, 당노나 고혈압으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65세까지는 별도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무진단 보험이나 건강상태를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 상담전화 080-261-5555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087호(2010.8.2)